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Ⅱ) —피해자를 중심으로—

Variables that Affect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Ⅱ)
—Focused on Victims—

부산대학교 아동·소비자·주거학과

강 사 金藝靜

교 수 金得星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Yea-jung Kim

Prof. : Deuk-sung Kim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논 의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les' and females' experiences of violence and to determine what variables served as predicting indicators among unmarried college studen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ose who sustained psychological aggression were 61%, physical violence 34%, and sexual violence 22%. As the sample indicates,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is a common phenomenon.

2. More males sustained the severe form of physical violence and the sexual violence than females did, while both sexes reciprocally sustained psychological aggression.

3. For males, significant predictors of sustaining dating violence were conflicts in the dating relationship and witness of interparental aggression, while for females, conflicts in the dating relationship, a need to control one's partner and school violence served as significant predictors.

I. 연구의 필요성

결혼전 데이팅활동은 미혼 남녀가 서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이성간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더우기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서 미혼 남녀의 데이팅활동은 격려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는데, 데이팅동안 서로의 양립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들은 많은 갈등을 겪으며 갈등해결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기도 한다. 1980년대초 Makepeace가 데이팅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후 여러 연구에서 폭력 발생율이 보고되었다. 예컨대 신체적 폭력은 미국 대학생의 20~50%가 경험한 적이 있으며(Arias et al., 1987; Bergman, 1992; Bernard & Bernard, 1983; 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yod, 1982; DeMaris, 1987; Follingstad et al., 1988; Gwartney-Gibbs et al., 1987; Henton et al., 1983; Makepeace, 1987; Riggs et al., 1990; Sigelman, Berry & Wiles, 1984; Sugarman & Hotaling, 1989; White & Koss, 1991) 신체적 폭력의 경우 양방적인 성격이 강하여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Marshall, 1987, 이영숙·박경란·전귀연, 1999에서 재인용). 반면 성적 폭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율이 높아서 20~50%의 여성이 데이팅관계에서 성적 폭력을 경험하였다(Koss, Gidycz, & Wisniewski, 1987; Koss & Oros, 1982). 또한 데이팅폭력의 형태와 빈도가 부부폭력에서 발견된 결과와 매우 유사함이 드러나므로써 데이팅폭력현상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렇듯 관계내에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폭력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김용미, 1996). 왜냐하면 데이팅폭력을 당한 사람들 중 39~54%가 계속 관계를 지속하였고(Sigelman, Berry, & Wiles, 1984), 어떤 경우는 데이팅관계에서 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 파트너와

계속 관계를 발전시켜 결혼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Makepeace, 1986; Roscoe & Benaske, 1985; Stets & Pirog-Good, 1987). 이러한 결과는 Lloyd(1991)에 따르면 데이팅관계의 '낭만적 이상' 즉, 첫눈에 사랑에 빠지거나 눈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사랑은 고통과 어떤 문제(폭력도 포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한다. 데이팅관계 자체의 특성인, '낭만적 이상'은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파트너들이 쉽게 간과하거나 무시하도록 하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Henton et al., 1983).

그러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은 간과되거나 미화될 수 없는 것임을 데이팅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개입 노력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데이팅폭력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가치감과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줄 뿐만아니라 후속적인 친밀한 관계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Llyod, 1991). 둘째, 데이팅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상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Makepeace(1986)는 데이팅폭력을 경험한 여대생의 50%가 폭력의 결과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데이팅폭력은 배우자폭력의 전조자임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구타당하는 여성들은 데이팅관계동안 그들의 파트너(지금의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다(Kelley & Loesch, 1983; Roscoe & Benaske, 1985). 또한 가정폭력상담소에 첫 방문한 내담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 206명 중 14.9%가 이미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정진경, 1999).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일단 관계에 폭력이 한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데이팅관계는 미래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패턴은 결혼생활로 연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이팅폭력은 관련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부부폭력에 비해 결혼전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데이팅폭력의 피해 양상이 어떠한

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결혼전 데이팅관계에 있는 미혼남녀들 사이에 발생하는 데이팅폭력의 피해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팅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가 여성의 피해경험에 초점을 두었지만 데이팅폭력에서 남성피해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Flynn, 1990), 여성의 피해와 더불어 남성의 피해를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데이팅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데이팅폭력 피해의 예방과 개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데이팅폭력 피해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데이팅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데이팅폭력의 정의

데이팅폭력은 일시적인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있는 미혼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폭력의 유형에는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이 포함된다. '심리적 공격'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말하기, 욕하기와 같은 언어적인 공격과 상대방의 물건부수기, 때리려고 위협하기와 같은 비언어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의도적 혹은 잠재적 의도성을 가지고 힘이나 도구를 사용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언어적 위협 혹은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교를 강요하거나 성교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데이팅폭력을 신체적 폭력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 유형은 상호 연관적이어서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

가지 폭력 유형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데이팅폭력 현상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데이팅폭력 피해의 경향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데이팅폭력의 피해경향은 부부폭력만큼이나 일반적이었다(Cate et al., 1982; Lane & Gwartney-Gibbs, 1985; Laner & Tompson, 1982; Makepeace, 1981, 1982; Yllo & Straus, 1981). 그리고 데이팅폭력 사건의 약 80%에서 데이팅 파트너는 폭력행동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Henton 등(1983)에 의하면 644명의 고등학생 중 78명이 데이팅폭력을 경험하였는데 이들 중 50명(71.4%)이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였고, Cate 등(1982)은 355명의 대학생 표본 중 79명이 데이팅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거의 70%(79명중 53명)의 학생이 상호적으로 폭력을 주고받았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Maura, 1997; David & O'Leary, 1996; Maura & Laura, 1998; Molidor & Tolman, 1998)에서도 데이팅동안 폭력의 가해/피해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데이팅관계에 있는 여성들도 남성들 만큼이나 폭력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대부분의 데이팅폭력은 상호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남성을 향한 폭력의 사용은 남성의 신체적 폭력이나 강제적인 성폭력을 막기 위한 자기방어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는데 Molidor와 Tolman(1998)의 연구에서 37%의 여성이 파트너를 향한 폭력 사용의 이유로 자기방어를 지적하였다.

한편 데이팅폭력의 피해양상에서 남녀간 성차가 발견되었다. 심한 폭력의 피해자는 신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Makepeace, 1983), 남성은 낮은 수준의 폭력(물건던지기, 밀기, 찰싹 때리기, 차기 물기)을 많이 당하는 반면에 여성은 더 높은 수준의 폭력(물건으로 치기, 마구 때리기)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Makepeace, 1986). Stets와 Henderson(1991)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물건을 던지기, 밀거나 움켜잡기, 뺨을 때리기와 같은 약한 신체적 폭력을 여성보다 거의 2배(38.4% vs 21.9%) 더 경험하였고 발로 차기, 마구 두들겨패기, 총으로 위협

하기와 같은 심한 신체적 폭력도 여성보다 6배 더 많이 경험하였다(19.2% vs 3.4%). Bookwala, Frieze, Smith와 Ryan의 연구(1992)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렇듯 데이팅폭력의 피해율에 대한 연구결과가 불일치하는 것은 몇가지 방법론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즉 대부분의 보고가 작은 표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다양한 지표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행해진 행동, 지각된 역할("피해자"), 상호성 대 일방성, 그리고 개시(누가 먼저 때렸는가)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들은 적은 표본을 성별로 나누는 것은 의미있는 비교가 될 만큼 충분한 케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의 보고를 차별화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된 한쪽 성의 과다보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국내연구에서 김용미(1996)는 대학생의 21.3%가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한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가장 빈번히 경험된 폭력의 형태는 밀기, 잡아채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물건던지기, 발로 차기, 주먹으로 때리기, 두들겨 패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공격은 Stets와 Henderson(1991)의 연구에서 약 90%의 남녀 응답자가 데이팅관계동안 언어적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것처럼 일반적이었으며, 심리적 공격은 단독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심리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신체적 폭력만큼 심리적 공격이 외상적이어서, 심리적 공격을 가한 파트너에게 보복하기 위해 신체적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Strts, 1990). Mason과 Blankenship(1987)의 연구에서 남성들이 그들의 파트너로부터 심리적 공격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하였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서 남녀간에 심리적 공격의 피해율은 다르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성폭력의 한 특별한 유형은 지인(acquaintance) 혹은 데이트 강간(date rape)이다. 이는 이성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데, 대학생집단에서 데이트강간이 증가하면서 대학캠퍼스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Ward, Chapman, Cohn, White, & Williams, 1991). 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력 경향을 보면 낮게는 15%(Koss, 1988)에서 높게는 78%(Muehlenhard & Linton, 1987)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대표적인 성폭력의 형태는 성교나 성교의 시도였다. 특히 여대생은 성폭력의 높은 위험집단으로 확인되었다. Ward 등(1991)의 연구에서 518명의 여성 중 50% 이상이 원치 않는 성접촉이나 성교 시도를 경험하였으며, 그 결과 51%의 여성이 심리적 상해를, 10%의 여성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결혼전 성폭력이 남성과 여성 둘다에 의해 발생할지라도(Cristopher, Owens, & Stecker, 1993b), 연구자들은 남성 폭력에 거의 배타적으로 초점두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피해자'는 정의상 파위가 없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체적 경제적 파위가 비교적 부족한 여성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과 힘이 센 성인남성은 여성에 의해 성적 폭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Busby & Compton, 1997).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적 폭력 피해가 보고되었다. Stets와 Pirog-Good(1989)는 지난 해 동안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폭력 행동(성교시도, 구강성교, 폭력없는/있는 성교)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36%의 여성과 비교해 22%의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Struckman-Johnson(1988)은 대학생들에게 "데이트동안 얼마나 자주 성교를 강요받았는지"를 물었는데, 13%의 여성과 비교해 9%의 남성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 의해 가장 자주 경험된 성폭력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52%의 남성은 심리적 압력과 함께 성폭력을 강요받았다고 한 반면, 55%의 여성은 신체적 힘을 통한 성폭력을 강요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28%의 남성은 심리적 압력과 신체적 힘을 통해, 10%의 남성은 신체적 힘만을 강요받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도 상당히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전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1996년에 강간 피해 여성(666명)을 상

담하였는데 이들 중 약 11%가 데이트 강간 피해자였다. 여성들이 데이트강간을 보고하는 경우가 일반 강간의 경우보다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제 데이트강간 발생율은 매우 높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신성자, 1997). 대학생들의 데이트강간 성향을 조사한 신성자(1997)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데이트강간(예를 들어, 언어적 압력을 가한 강간)일수록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약 60%)을 훨씬 많이 보여서 데이트상황에서 위협성이 다소 덜 심각한 유형의 데이트강간은 빈번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결혼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낮은 이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낳으며 피해자는 관계와 성적 기능에 장기적인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Christopher, Madura, & Weaver, 1998). 따라서 결혼전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데이팅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데이팅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가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데이팅폭력의 가해 경향과 영향 변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된 상태이다. 반면에 데이팅폭력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데이팅폭력의 피해 경향을 파악하거나 피해의 성차 그리고 폭력의 유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몇편에 불과하다(Maura & Laura, 1998). 그나마 연구결과들이 불일치적이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부부폭력과 마찬가지로 사회화이론이나 페미니즘이론과 같은 사회이론에 기초한다. 특히 사회화이론은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의 가해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었지만 피해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였다(Maura & Laura, 1998). 사회화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행동 조건화와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Bandura, 1977). 따라서 부모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체벌이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이러한 행동패턴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으며, 데이팅관계를 포함한 이후 성인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폭력적인 가족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은 폭력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낮은 심리적 문턱을 가지게 되어 성장해서도 폭력의 피해자가 되게 된다. 몇몇 연구에서 데이팅폭력의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폭력의 세대간 전달'을 검토하였는데, 결혼전 데이팅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데이팅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근원가족에서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더 많았다(Emery, 1983; Laner & Tompson, 1982; O'Keefe, Brockopp & Chew, 1986; Roscoe & Callahan, 1985)(Llyod, Koval & Cate, 1989에서 재인용). 사회화이론은 가족의 영향을 더 중시하여 지역사회나 학교의 역할을 간과한 경향이 있는데, 아동이 청년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폭력 경험도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즉 친구들과 몸싸움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거나 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폭력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져서 데이팅관계에서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 결국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페미니즘이론에서 파트너에 대한 통제 변인이 도입되었는데, 이론에 따르면 통제는 불평등한 이성관계에 본질적이다.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묵인되며 폭력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허용되고, 여성은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가능하다고 믿게끔 사회화된다(Maura & Laura, 1998). 그러나 관계구속이나 관계끝내기가 비교적 용이한 데이팅관계에서 통제는 부부관계와는 다르게 작동할 것이다.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이나 파트너가 만나는 사람 등 파트너의 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통제당하는 사람에게는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을 이끌 수 있다(Stets, 1992).

또한 폭력 피해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있거나 교체기간이 길수록 폭력이 발생하였다. 데이팅관계 갈등은 파트너

들이 데이팅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일치로서 생활습관, 의사소통, 성문제, 미래계획, 서로에 대한 헌신, 알콜사용 등이 주요한 갈등내용이었다(Stets, 1995). 지금까지 생활경험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갈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갈등상황에서 스트레스 처리인데,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이용가능한 대안적인 반응이 제한적인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고, 다시 상대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받게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력의 피해와 가해가 높게 상관적이어서 여성쪽에서 먼저 폭력을 가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되맞게 될 가능성이 커기 때문에 폭력은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한 반응이라고 경고하였다(Mason과 Blankenship, 1987). 그리고 파트너와의 교체기간이 길수록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ason과 Blankenship(1987)의 연구에서 파트너와 교체한지 2년이 된 사람들은 심리적 공격을 더 많이 받았지만,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받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5개 대학교(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부산해양대, 고신대, 경남대)의 대학생을 임의표집 하였다.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의 도움을 받아 데이팅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가능함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질문지를 배포하고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질문지 응답은 지금까지 최소 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데이팅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성이 243명으로 59.1%이며, 여성이 168명으로 40.9%로 남성이 다소 많으나 남녀비율이 비슷해 성별 비교가 용이하였다. 연령은 편중됨 없이 골고루 분포하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수(%)			
변인	구 분		변인	구 분		
성별	남	243(59.1)	부모 학력	중졸이하	101(24.6)	178(43.4)
	여	168(40.9)		고졸	196(47.8)	193(47.1)
				대졸이상	113(27.5)	39(9.5)
연령	20세이하	101(24.6)	부모 직업	무직, 주부, 정년퇴직자, 연금생활자	49(12.4)	263(64)
	20세이상-23세이하	135(32.9)		고용직, 기능직, 서비스직, 노무직	77(19.4)	47(11.4)
	24세이상-26세이하	143(34.8)		소규모자영업	137(34.6)	80(19.5)
	27세이상	32(7.7)		교사, 회사의 일반사무직, 공무원, 은행원	62(15.7)	11(2.7)
가정의 수입	100만원이하	26(6.4)	직업	일반전문기술직, 대규모자영업	33(8.3)	7(1.7)
	101-200만원이하	204(50.3)		회사의 부장, 차장, 영관급 군인	15(3.8)	1(0.2)
	201-300만원이하	115(28.4)		회사의 중역이나 이사,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	16(4.0)	0(0)
	301만원이상	60(14.8)		고위전문직, 정부의 고위관리	7(1.8)	2(0.5)
가족 형태	핵가족	337(81.9)				
	확대가족	54(13.1)				
	편부모가족	19(4.6)				
	계부모가족	1(0.2)				

교육수준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중졸 이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해 부모간 교육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함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많았으며, 가정의 월 소득은 101만원에서 200만원 이하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조사대상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별로 윤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측정 도구

1) 데이팅폭력 피해 척도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의 CTS II를 번안하였고, 국내 손정영(1997)과 백경임(1998)의 CTS II 척도 번역을 참고하여 용어를 수정해 데이팅과정 동안 파트너에게서 경험한 폭력의 양을 조사하였다. 사용된 하위척도는 심리적 공격 8문항(가벼운 공격 4문항, 심각한 공격 4문항), 신체적 폭력 12문항(가벼운 폭력 5문항, 심각한 폭력 7문항), 성적 폭력 7문항(가벼운 폭력 3문항, 심각한 폭력 4문항)이며, 응답범주는 전혀없음(0), 1년전에 발생(1), 1년에 1번(2), 1년에 2번(3), 1년에 3-5번(4), 1년에 6-10번(5), 1년에 11-20번(6), 1년에 20번 이상(7)의 8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팅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심리적 공격 $\alpha = .74$, 신체적 폭력 $\alpha = .85$, 성적 폭력 $\alpha = .79$ 이었다.

2) 부모간 폭력 목격 척도

부모간 폭력 목격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아동기 때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정도를 평가하는 4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보지 못했다(0), 가끔 보았다(1), 자주 보았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폭력을 많이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63$ 이었다.

3) 아동기 체벌 경험 척도

아동기 체벌 경험 척도는 MacEwen과 Barling(1988)의 아동기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체벌받은 정도

를 평가하는 4문항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벨트나 몽둥이'로 맞은 경험을 묻는 문항을 '회초리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질문하였고,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 가끔 있었다(1), 자주 있었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아버지로부터의 아동기 체벌 경험은 $\alpha = .80$, 어머니로부터의 아동기 체벌 경험은 $\alpha = .75$ 이었다.

4) 학교 폭력 경험 척도

학교 폭력 경험 척도는 응답자가 초·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신체적 싸움을 얼마나 했었는지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 가끔 있었다(1), 자주 있었다(2)의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5) 파트너에 대한 통제 척도

Stets(1992, 199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지난 1년 동안 파트너를 통제하는 행동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범주는 전혀 없었다(0), 거의 없었다(1), 가끔 있었다(2), 자주 있었다(3), 매우 자주 있었다(4)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 .75$ 이었다.

6) 데이팅관계 갈등 척도

데이팅관계 갈등 척도는 Riggs와 O'Leary(1996)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파트너와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를 알기 위해 한달에 1번(1점)~하루에 1번 이상(5점)의 응답범주로 질문하였고, 데이팅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내용 11가지를 제시하여 몇가지의 주제로 주로 싸우는지를 질문한 다음 0점~5점의 점수를 주어 싸움빈도와 갈등 내용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팅관계 갈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997년 12월 9일부터 31일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었다. 총 5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500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411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window용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해서 빈도분포, t-test,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데이팅폭력 피해의 전반적 경향

1) 데이팅폭력 피해의 경향

〈표 2〉 데이팅폭력 피해의 경향

변 인	사례수	%	(n=411)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공격	251	61	4.1	5.5
신체적 폭력	139	34	2.6	6.8
성적 폭력	92	22	1.4	3.7

본 대학생 표본에서 데이팅동안 파트너로부터 최소 1번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다소 높았다. 심리적 공격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61% 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34% 였으며, 성적 폭력은 22%로 나타났다. 이러한 폭력행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폭력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심리적 공격은 평균 4.1, 표준편차 5.5로 응답범주 중 '일년에 3-5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은 평균 2.6, 표준편차 6.8로 응답범주 중 '일년에 2번'과 '일년에 3-5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적 폭력은 평균 1.4, 표준편차 3.7으로 응답범주 중 '일년 전에 발생'과 '일년에 1번' 사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팅폭력 피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성적 폭

력을 포함한 데이팅폭력의 피해 발생율이 데이팅폭력의 가해 발생율(김예정·김득성, 1999)과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이 가한 폭력의 양과 그들이 파트너로부터 받은 폭력의 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역시 심리적 공격에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폭력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경험율과 빈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aura와 Laura(1998)의 연구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폭력의 피해경험이 40%를 넘어서 서구에서는 고등학생 때부터 데이팅폭력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성별 데이팅폭력 피해 경향

성별에 따라 데이팅폭력의 피해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이 경험한 심리적 공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양성이 파트너로부터 경험한 심리적 공격의 정도는 비슷하였다.

전체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신체적 폭력 중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찌르거나 치기, 두들겨패기, 발로 심하게 차기와 같은 심각한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적 폭력 경험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성관계하기 위해 위협하기, 성관계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기와 같은 심한 성적 폭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심리적 공격은 남녀가 유사하게 경험하지만, 신체적 폭력 중 심각한 유형의 폭력과 성적 폭력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계상 남녀간 피해경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수가 작고 평균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다라고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또한 피해율은 데이팅폭력의 피해에 대한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회상시 감정상태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보고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전반적

〈표 3〉 성별 데이팅폭력 피해의 경향

폭력 유형	남 성			여 성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t값
전체 심리적 공격 ¹⁾	141(58)	4.2	6.2	110(55.5)	3.8	4.3	.76
가벼운 심리적 공격	132(54.3)	2.9	3.9	95(56.5)	2.7	3.2	.50
심각한 심리적 공격	77(31.7)	1.3	2.9	57(33.9)	1.1	1.9	.91
전체 신체적 폭력 ¹⁾	79(22.5)	3.1	8.4	60(35.7)	1.9	3.5	1.96
가벼운 신체적 폭력	77(31.7)	1.9	4.5	55(32.7)	1.6	3.0	.97
심각한 신체적 폭력	29(11.9)	1.1	4.3	16(9.5)	0.3	1.1	2.79**
전체 성적 폭력 ¹⁾	59(24.3)	1.7	4.4	33(19.6)	0.9	2.3	2.36*
가벼운 성적 폭력	55(22.6)	1.2	2.7	28(16.7)	0.8	2.2	1.75
심각한 폭력	20(8.2)	0.5	2.2	8(4.8)	0.1	0.7	2.37*

* p<.05 ** p<.01

¹⁾ 전체 심리적(신체적· 성적) 공격(폭력)은 가벼운 심리적(신체적· 성적) 공격(폭력), 심각한 심리적(신체적· 성적) 공격(폭력) 문항 중 한가지 이상의 문항에 응답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비율은 하위 비율의 합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인 데이팅폭력 피해율이 남녀간에 유사하게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남성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데이팅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서로 폭력을 주고받으며 상당수의 여성이 데이팅폭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데이팅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데이팅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6개의 변인(부모간 폭력 목격,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학교 폭력 경험, 파트너에 대한 통제, 데이팅관계 갈등, 데이팅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데이팅폭력(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성별로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상관이 유의한 변인만 선택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의 선행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잔차의 정규성을 Dubin-Watson 통계량을 이용해 검토하였고, 성별로 독립변인들간의 다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 추정치에 대한 허용도(Tolerance), 고유값(Eigenvalue), 조건지표(Condition number)를 검토한 결과¹⁾ 다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심리적 공격의 피해에는 데이팅관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여성파트너로부터 심리적 공격을 많이 경험하였다. 신체적 폭력의 피해에도 데이팅관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즉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여성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성적 폭력의 피해에는 부모간 폭력 목격이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기때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많을수록 여성파트너로부터 성적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팅관계 갈등은 비록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의수준에 근접하여 (.056) 성적 폭력의 피해에 다소간의 영향력을 행사

1) 남성과 여성의 중다회귀모형의 DW값은 1.8-2.2로 2.0에 가까와 잔차가 정규성을 따른다고 보았다. 다공선성 검증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는 0.91-0.99로 기준(0.1이상)이 충족되었으며, 고유값은 0.1-0.7로 기준(0.01이상)을 충족하였고, 조건지표는 1-1.1로 기준(100이하)를 충족하였다.

〈표 4〉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411. 위:남성, 아래:여성)

	1	2	3	4	5	6	7	8	9	10
1. 부모간 폭력 목격	-									
2. 아버지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34***	-								
3. 어머니로부터 아동기 체벌 경험	.24***	.32***	-							
4. 파트너에 대한 통제	.16*	.02	.12	-						
5. 학교 폭력 경험	.21**	.18**	.16*	.03	-					
6. 데이팅관계 갈등	.07	.08	.05	.30***	.01	-				
7. 데이팅기간	-.03	-.10	-.12	.10	-.05	.12	-			
8. 심리적 공격	.07	.08	.08	.17**	.06	.27***	.09	-		
9. 신체적 폭력	.08	.09	.03	.13*	.04	.20**	.09	.74***	-	
10. 성적 폭력	.14*	.08	.05	.12	.12	.13*	.05	.62***	.78***	-
	.04	.03	.04	.08	.13	.10	-.00	.26***	.24***	-

*p<.05 **p<.01 ***p<.001

〈표 5〉 데이팅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

성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 성			여 성				
	독립변인	b	β	R ²	독립변인	b	β	R ²
심리적 공격	데이팅관계 갈등	0.80	0.24***	.09***	파트너에 대한 통제	0.29	0.21**	.11***
	파트너에 대한 통제	0.20	0.10		데이팅관계 갈등	0.43	0.20*	
신체적 폭력	데이팅관계 갈등	0.79	0.18**	.06**	학교 폭력 경험	0.60	0.16*	.04*
	파트너에 대한 통제	0.21	0.08					
성적 폭력	부모간 폭력 목격	0.65	0.13**	.04*	영향변인 없음			
	데이팅관계 갈등	0.28	0.12					

*p<.05 **p<.01 ***p<.001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파트너에 대한 통제는 데이팅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은 여성을 통제해도 괜찮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여대생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심리적 공격의 피해에는 파트너에 대한 통제와 데이팅관계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즉 파트너에 대한 통제가 많을수록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남성파트너로부터 심리적 공격을 많이 경험하였다. 신체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학교 폭력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중·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을 수록 남성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택된 변인들 중에서 여성의 성적 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성적 폭력을 경험한 사례수가 적어서인 것 같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데이팅관계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남녀 모두 데이팅폭력의 가해(김예정·김득성, 1999) 뿐만 아니라 남성의 심리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피해와 여성의 심리적 공격 피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다고 지각한 경우 여성으로부터 모든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이는 Neufeld와 davidson(1974)가 지적한 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주관적 반응이 큰 반면에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해소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더 많이 가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여성들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서 본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인지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 볼 만한 점이라 생각된다. 아무튼 본 연구결과는 Riggs와 O'Leary(1989)가 데이팅관계 갈등은 "데이팅폭력 모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데이팅폭력의 예방이나 개입을 위한 노력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Stets & Hendersons, 1991)에서 데이팅관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원인으로 다른 이성에 대한 질투, 음주습관의 사소통 불일치 등이 지적된 바 있는데, 대학생들이 데이팅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갈등영역별로 확인하여 각각의 갈등을 다루는 효과적인 대안이나 기술을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팅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겠다.

여성의 경우 학교 폭력 경험은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가해(김예정·김득성, 1999) 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의 피해에도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주목할만하다. 초·중·고등학생 때 신체적 싸움 경험이 많은 여성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어 데이팅관계에 문제 발생시 먼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파트너로부터 폭력피해를 자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폭력 경험은 여성의 데이팅폭력과 매우 관련이 크므로 미래의 연구에서 학교 폭력 경험이 여성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주는 경로나 과정을 설명하는 정교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V. 논 의

최근 가정폭력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 1주년을 맞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의 확립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사회문제로 야기될 만큼 심각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서이다. 그만큼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잘 인식되어 있어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전체적인 데이팅폭력 피해경험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이 유사하였으며, 오히려 심한 신체적 폭력과 전체 성적 폭력의 피해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데이팅폭력 경험의 과다 혹은 과소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먼저 남성이 자신이 피해 경험한 데이팅폭력을 과다보고했을 수 있다. Arias, Samios와 O'Leary(1987)와 Acal과 Wampler(1986)의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를 더 많이 보고하였지만, 결과 해석에서 남성이 폭력사용은 덜 보고한 반면에 피해는 과다보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데이팅폭력 피해경험을 과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데이트강간의 경우 일반 강간보다 피해여성에게 책임과 비난을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데이트강간 피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피해를 보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드물다고 한다 (Amir, 1985, 신성자, 1997에서 재인용). 또한 데이트 상황에서 일어나는 남성의 강압적인 성행위를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신성자(1997)에 의하면 남자대학생들의 데이트강간 성향이 비판

적인 응답자(9.4%)는 아주 적었던 반면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28.3%)이 정당화하는 성향을 보여서 데이트강간이 빈번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더 많이 가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여성에 의해 남성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대중매체나 연구가들에 의해 "선택적 무관심"²⁾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많지 않아 여성에 의한 남성폭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Flynn, 1990). 그러나 부부폭력 중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들 역시 '매맞는 남편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신드롬은 '매맞는 아내 신드롬'에 버금간다고 하였고, 직장동료의 뺨을 때리는 행위와 같은 여성에 의한 폭력 역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안영희, 1998에서 재인용). 데이트폭력도 데이트관계의 약 절반에서 상호적으로 일어나며 단독 가해자의 비율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과 비등해서 여성에 의한 남성폭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Flynn, 1990).

특히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증가한 현상은 데이트가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의 결혼전 성문화는 결혼전 성욕의 표현에서 양공간 동등성이 커지고 있다(Oliver & Hyde, 1993).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허용되었던 것에 비해 여성의 성적 탐색을 더 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남성파트너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여성은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곧바로 실행으로 더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었다(Muehlenhard & McCoy, 1991, Christopher, Madura, & Weaver, 1998에서 재인용).

어떤 설명이 타당할지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후속연구의 증가와 한 쌍의 자료에 기초한 결과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Straus와 Gelles(1986)가

지적한듯이, 남성에 의한 폭력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에 의한 폭력은 무시되어도 괜찮다고 인식해서는 안되며 여성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폭력에 의해 고통받는 남성을 위해서도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사회학습이론과 페미니즘이론에 근거해 선택한 남녀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몇몇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데이트관계 갈등, 부모간 폭력 목적은 여성파트너에 의한 데이트폭력 경험에 영향을 주었고, 여성의 경우는 역시 데이트관계 갈등과 함께 파트너에 대한 통제, 학교폭력 경험이 영향을 주어서 부분적으로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개입에서 이들 변인에 대한 적절한 취급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의 통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이 데이트관계에서의 경험하는 폭력 피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들은 데이트관계에서 심리적 공격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61%, 신체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34%, 그리고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공격은 양성(남성 58%, 여성 55.5%)으로 피해를 경험한 반면, 신체적 폭력 중 심한 폭력(남성 11.9%, 여성 9.5%)과 성적 폭력(남성 24.3%, 여성 19.6%)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2) 여권론자들은 구타당하는 남편에 대해 관심을 갖게되면 더 심각한 아내학대의 문제를 위해 싸우는데 방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고, 사실 학대적인 남편에 의한 여성의 상해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여성의 피해가 더 두드러진다(Flynn, 1990).

많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째, 남성은 데이팅관계에 갈등이 많을수록 심리적 공격 피해와 신체적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하였고, 근원가족에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이 많을수록 성적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하였다. 여성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욕구가 많을수록 데이팅관계 갈등이 많을수록 심리적 공격피해를 많이 경험하였고, 초·중·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적 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팅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데이팅 중 파트너로부터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상당하며, 특히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데이팅관계에서 여성의 상당수가 폭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남성이 대체로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성별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태도에서 폭력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폭력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데이팅관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높은 폭력피해율은 폭력적인 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입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게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데이팅관계 갈등, 파트너에 대한 통제, 부모간 폭력 목격, 학교 폭력 경험은 이러한 개입과정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데이팅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는 프라이버시, 정서적 관여, 상대에 대한 영향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부부관계와 유사한 특성을 보유하며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호작용 상황이다(Flynn, 1990). 따라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특성과 폭력과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데이팅폭력은 물론 미래의 부부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의 통합으로 남성과 여성의 데이팅폭력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데이팅폭력 피해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수립되어야겠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데이팅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예정·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가해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권 10호(계재예정).
-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14(1).
- 백경임(1998). CTS2의 자녀용으로의 수정 및 한국 대학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6권 2호.
-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남편의 갈등대처 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 신성자(1997).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 강간성향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32, 8, 181-211.
- 안영희(1998). 기혼 남녀의 부부폭력 태도와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박사논문*.
- 이영숙·박경란·전귀연 공저(1999). 가족문제론 제 8장 가정폭력 p.259. 학지사.
- 정진경(1999). 가정폭력관련 면접초상담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가정폭력 Workshop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시행1주년 평가 및 개선방안토론회 자료집.
- Arias, I., Samios, M., & O'Leary, K.D.(1987).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during courtship. *J. of Interpersonal Violence* 2, 82-90.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ernard, M.L., & Bernard, J.L.(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283-286.
- Bergman, L.(1992).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Social Work*, 37(1), 21-27.
- Bookwala, J., Frieze, I.H., Smith, C., & Ryan, K. (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297-311.
- Busby, D.M., & Compton, S.V(1997). Patterns of sexual coercion in adult heterosexual relationships: An exploration of male victimization. *Family Process* vol 36, no 1.
- Cate, R.M., Henton, J.M., Koval, J.E., Christopher, F. S., & Lloyd, S.A.(1982). Premarital abuse: A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 of Family Issues*, 3, 79-90.
- Christopher, F.S., Madura, M., & Weaver, L.(1998). Premarital sexual aggressors: A multivariate analysis of social, relational, and individual variab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56-69.
- Christopher, F.S., Owens, L.A., & Strecker, H.L. (1993b). Exploring the darkside of courtship: A test of a model of male premarital sexual aggress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69-479.
- DeMaris, A.(1987). The efficacy of a spouse abuse model in accounting for courship violence. *J. of Family Issues*, 8, 291-305.
- Flynn(1990). Relationship violence by women: Issues and implications. *Family Relations* 39.
- Follingstad, D.R., Rutledge, L.L., Polek, D.S., & McNeill-Hawkins, K.(1988). Factors associated with patterns of dating violence toward college women. *J. of Family Violence*, 3, 169-182.
- Gwartney-Gibbs, P.A., & Stockard, J., & Bohmer, S. (1987). Learning courtship agg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36, 276-282.
- Henton, J.M., Cate, R.M., Koval, J.E., Lloyd, S.A., & Christopher, F.S.(1983). Romance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J. of Family Issues*, 4, 467-482.
- Koss, M. P.(1988). Hidden rape: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 A. Burgess (Ed.), *Rape and sexual assault*(Vol.2). New York: Garland.
- Koss, M.P., Gidycz, C.A., & Wisniewski, N.(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Koss, M.P., & Oros, C.J.(1982). Sexual experiences survey: A reseach instrument investigating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455-457.
- Lane, K.D., & Gwartney-Gibbs, P.A.(1985). Violence in the context of dating and sex. *J. of Family Issues*, 6, 45-59.
- Laner, M.R., & Thompson, J.(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 couples. *Deviant Behavior*, 3, 229-244.
- Lloyd, S. A.(1991). The darkside of courtship: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Family Relations*, 40, 14-20.
- Lloyd, S. A., Koval, J., & Cate, R.(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M. Pirog-Good & J.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MacEwen, K.E., & Barling, J.(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 of Family Violence*, Vol. 3, No1.
- Makepeace, J.M.(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o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_____ (1982). Life events stres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32, 101-109.
- _____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_____ (1987). Social factor and victim-offender difference in courtships violence. *Family Relations* 36, 87-91.
- Mason, A., & Blankenship, V.(1987). Power and affiliation motivation, stress, and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203-210.
- Maura, O'keefe(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Issue 4.
- Maura, O'keefe, & Laura, T.(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Vol. 4, Issue 2.
- Molider, C., & Tolman R. M.(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vol4. no 2, 180-194.
- Muehlenhard, C., & Linton, M.(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86-196.
- Neufeld, R., & Davidson, P.O.(1974). Sex differences in stress response: A multivariate analysis. *J. of Abnormal Psychology*, 83, 178-185.
- Oliver, M.B., 7 Hyde, J.S.(1993). Gender differences in sexu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29-51.
- Riggs, D.S., & O'Leary, K.D.(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Stets J. E., & Pirog-Good M. 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_____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1, Issue 4.
- Riggs, D.S., & O'Leary, K.D., & Breslin, F.C.(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 of Interpersonal Violence*, 5 (1), 61-73.
- Roscoe, B., & Benaske, N.(1985). Courtship violence experienced by abused wives: Similarities by patterns of abuse. *Family Relations* 34, 419-424.
- Sigelman, C.K., & Berry, C.J., & Wiles, K.A.(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dating relationships. *J.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traus, M.A., & Gelles, R.(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65-479.
- Stets, J.E.(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 _____ (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165-177.
- _____ (1993). Control in dating relationship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73-685.
- _____ (1995). Modelling control in relationship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89-501.
- Stets, J.E., & Henderson, D.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 from a national stud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29-36.
- Stets, J.E., & Pirog-Good, M.A.(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237-246.
- _____ (1989). Patterns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for men and women in dating relationships: A descriptive analysis. *J. of Family Violence*, 4, 63-76.
-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S., &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uckman-Johnson, C.(1988). Forced sex on date: It

- happens to men, too.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4, 234-241.
- Sugarman, D.B., & Hotaling, G. T.(1989). Dating vio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kers. In Stets J. E., & Pirog-Good M. A,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New York: Praeger.
- Ward, S.K., Chapman, K., Cohn, E., White, S., & Williams, K.(1991). Acquaintance rape and the college social scene. *Family Relations*, 40.
- White, J.W., & Koss, M. P.(1991). Courtship violence: Incidence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6, 247-256.
- Yllo, K., & Straus, M.(1981). Interpersonal violence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Family Relations*, 30, 339-347.